

분과발표_교육 2

기독교인의 전통적 생활과 SNS의 교육목회적 결합에 관한 연구

안영혁 (충신대학교 강사)

논문초록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의 교세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개신교 교회만이 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윤리적 문제도 많이 노출시켰다. 이것은 지난 약 30년간에 걸쳐 한국 개신교 교회가 사회적 책임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영성적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한다. 필자는 그래서 사회적 책임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 생활의 변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기독교인 생활을 변화시키는 교회 전통적 방법의 기초는 성경일과대로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성경일과를 성도들에게 꾸준히 전달하는 매체가 적절하지 않았는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혹은 소셜 미디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필자는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인 유료문자서비스에 주목하였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교인에게 매일의 성경일과와 그에 관련된 묵상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필자는 실행 후 얼마간 효용성을 긍정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 일상생활의 영성과 SNS의 결합은 미디어 발전 정도에 따라 늘 다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교회 사역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각성을 추구하고 있다.

주제어: 개신교의 위기, 일상생활의 변화, 교회력, 성경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I. 서론 - 개념들

제목에 사용한 말을 해명하는 것으로 서론을 삼겠다.

첫째 기독교인의 전통적 생활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장 일상적인 기독교인의 생활을 반영하는 성경일과를 말하려고 한다. 성경 일과는 기독교 초기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었으며(정장복, 1996, 62-66), 종교 개혁기에는 이에 대하여 회의적인 관점을 피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정장복, 37-38; 67-68) 개신교 내의 움직임 가운데서 절기와 함께 회복되었다(정장복, 69-70). 그리하여 중세가 어떠한 오랜 기독교의 전통이 성경일과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다. 필자는 기독교 전통의 제1보가 성경일과라고 본다. 즉 예배와 일상에 가장 보편적이고도 적절하게 성경을 이끌어 들이는 방법이자(정장복, 51-52), 삶의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인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전통적 생활이라는 말을 통하여 다름이 아니라 성경일과를 말하려 한다.

둘째 SNS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오

늘날 대부분의 SNS는 웹 기반의 서비스이며, 웹 이외에도 전자우편이나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들끼리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SNS는 소셜 미디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범주상 블로그, 위키, UCC, 마이크로 블로그 등과 함께 소셜 미디어의 한 유형으로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위키백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필자는 모바일상의 문자 전송을 우리 시대 교회의 소통 방법으로 진술하려고 하는데, 이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SNS라고 하기보다는 큰 범위의 소셜 미디어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이 교회 대중에게 가장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미디어로서 오늘 그 사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본다. 그리고 큰 범위에서 교회에서의 소셜 네트워크 활용이라는 범주에 든다고 보아서, 보다 확장된 의미의 SNS 개념을 취하면서 이 논문을 진행시키려 한다.

셋째, 교육목회적이란 이것이 교육의 방법이면서도, 학생들을 이끌기 위한 교육 방법으로만 진술되지는 않으리란 뜻도 함께 담고 있다. 오히려 이미 기독교인이 되어 있으나, 매일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소통을 하기 원하는 성인들에게 영성과 신학적 해석 등을 제공하려는 것이 이 활동이 원래 지향하는 바이다. 이 논문의 지향도 당연히 그와 같다.¹⁾

II. 본론

1. 시대의 판단과 훈련의 문화적 실마리

오늘 한국 교회는 기로에 서 있다.²⁾ 유럽 교회는 문명의 발전 및 지식의 확산과 함께 활력적이지 못하다.³⁾ 한국 교회는 그런 변화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다. 오늘 우리나라 대

1) 필자는 앞으로 설명할 이 문자를 청소년들에게도 띄운다. 반응이 그리 뜨겁지는 않지만, 인생의 동반자인 그 핸드폰에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들어오는 문자가 목사님으로부터 왔다는 각인은 되고 있었다. 필자는 이들을 향한 꾸준함을 일단 전략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지미 롱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청년 전도는 오랜 기간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니까 복음 제시는 훌륭하여도 그것이 바로 통하던 모더니즘 전도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선언이다. 두 시대의 모습이 우리에게 함께 나아와 있기는 해도 새로운 시대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면이 필자의 이런 활동에도 얼마간 결부되어 있다.(Jimmy Long, 2009)

2) 필자는 습관처럼 우리 시대와 관련하여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논의를 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말하자면 그 특별함이 일상이 되어서 그다지 논할 말이 없다. 오히려 포스트모더니즘조차 학문의 황혼에 이르렀다는 말을 할 만하다. 여전히 포스트모던의 조건들은 생생하게 살아 있지만, 모더니즘 시대의 조건들이 여전히 그 중요성을 주장하는 듯 한 것이 요즘 시대 판단인 것 같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몰락한 줄 알았던 동구권 철학자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슬라보예 지젝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모더니즘도 되살리고 마르크시즘도 되살리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다시 이야기해 보자고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는 것을 보면 정치 중심의 모더니즘 사회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불편스럽지만, 그들의 시대 판단이 그리 잘못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이 또 뭐라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라?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함께 섞여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원래 우리가 살던 그 시대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다. 오직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잘 살아야 하겠다는 것. 그 잘 산다는 것을 판단할 기준이 모던하기도 하고 포스트모던하기도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시대에 대한 판단이라면 판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성적으로, 또 때로는 감성적으로 사태를 바라보아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좀 더 잘 살아야겠다.

3) 필자는 유럽 기독교 사회에 칸트라는 철학자가 나타난 것이 매우 시대사적이라 본다.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나, 고백하지도 않는 일반 학풍을 일으켰다. 이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한 고백을 하지 않고도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되었다. 칸트 자신이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으나 성인이 된 이후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주의를 말할 때 칸트가 필두에 서는 것은 바로 이런 사정 때문이다. 18세기는 다른 무엇보다 칸

학교 캠퍼스에 개신교 선교 단체가 눈에 띄게 줄었다 한다. 특히 지성과 상대주의의 산실인 대학교가 기독교에 대하여 소원한 것이다. 가톨릭과 함께 기독교의 현재를 판단한다면, 기독교 인구는 현상유지를 하고 있거나,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스 쾨링은 심지어 이슬람교를 기독교 및 유대교와 한 캠프로 분류한 바가 있다(한스 쾨링, 2002, 62-68) 이것은 개혁적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이가 없지만, 전혀 무용지물의 논의는 아니다. 우리나라 같은 다원종교적 사회에서는 대략적 분류의 좋은 방향을 준다. 오늘 한국인들의 종교는 크게 말해서 불교냐, 기독교냐 하는 큰 분류를 할 수 있다. 유교는 불교와 다르다 하지만 특히 내세 사상이 없는 유교인들은 그 내심에 불교적 내세론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불교와 유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종교로 인식된다는 면에서도 이 둘은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큰 종교는 불교적 종교와 기독교적 종교 둘로 나뉘는 셈이고, 전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의 은근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종교인 및 잠재적 종교인의 진영이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선교학적 입장에서는 이 불교적 대중에게 기독교를 전파해야 하지만, 현실 상황 파악에 있어서는 이 둘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개신교교회와 가톨릭으로 나뉘게 되어 있는데, 근래는 가톨릭 성도는 늘고 개신교 성도는 줄고 있다. 그렇다면 아주 크게 말해서 기독교 성도는 늘거나 혹은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가톨릭은 늘고 개신교는 줄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가톨릭은 성공하고 있고, 개신교는 실패하고 있다.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개신교 교회의 실패는 사회적 이미지 관리의 실패이다.(이원규, 1991, 243-44)⁴⁾ 개신교 교회의 풀뿌리인 개별 성도들은 사회의 수많은 일들에 시시콜콜 아파하고 돈을 쓰고 몸을 움직여서 기독교 사회를 지켜왔다. 그럼에도 오히려 교회의 지도부는 그런 성도들의 의식에 조차 미치지 못하여 끝없이 교권주의적 태도나 부패 타락의 모습을 보여,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종교개혁시대와는 정반대로 뒤집혔다는 인상까지 준다. 중세에 교황이 몰래 혹은 공공연히 자식을 낳아 그를 조카라 이름하고 교황청에서 일하도록 조치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시시로 개신교교회의 세습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⁵⁾ 그것은 말하자면 과거 가톨릭의 비리를 닮은 것이다.⁶⁾ 그런데 오히려 가톨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해서 평신도 신학을 성장시키고 예배에서 강론을 중시하는가 하면 각각 제 나라 말로 예전을 행하도록 하는 등 개혁조치들을 하여 400년 이상을 지낸 후에 루터의 개혁조치들을 받아들이는 형국이 되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해설총서1, 1987, 13-20)⁷⁾그러니까 루터가 오늘 일어난다면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그릇된 예전적 요소들을 제하고는 오히려 가톨릭교회가 자신의 지향에 더 맞다고 생각하지

트의 세기였고, 19세기에는 그의 학문적 경향을 출발점으로 하는 자유주의의 시대였다. 자유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나 고백하지도 않는 전통이었고, 20세기 신정통, 신칼빈주의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유럽의 자유주의적 토속종교로 오늘도 지속된다고 본다. 필자는 적어도 이런 면에서 미국은 다르다고 보며, 그런 의미에서 유럽 기독교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지속적으로 미국과 더 깊은 교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 가운데 있다고 본다.

4) 이원규교수는 1990년대에 이미 기독교와 사회의 관계에 대하여 혹은 현실적으로 혹은 미래 예측으로 이런 언급들을 한 바가 있다.

5) 교권 세습은 교황권 부패와 매우 흡사하다. 교황이 자신의 아들을 nepos 즉 조카라 하며 교황청에 기용한 사실을 두고 nepotism이란 말이 생겼는데, 이는 현대로 말하자면 연고주의 족벌체제 등의 의미라 하겠다.(정서영, 2009, 209)

6) 이런 정황들 가운데,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우리 사회를 떠돌고 있다.

7) 가톨릭의 공의회 문서는 워낙 방대하게 또 자신들의 방식대로 열거되어 있어, 그 세세한 부분을 논하는 것은 다시 더 깊은 연구를 요한다. 이 부분은 해설서를 내면서 붙인 서문에서 그 의의를 진술한 부분 중 일부이다.

않을지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

이미 말한 대로 필자는 이것이 개신교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 관리의 실패라고 본다.(조성돈, 정재영편, 2007, 15-24)⁸⁾ 물론 단지 이미지만이 아니라 특히 교회 지도부의 실제적 잘못과 연결되어 있다. 오늘 여러 번듯한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윤리적 허물을 범한 사례가 있었다. 알고 보면 평신도들에게는 늘 있어온 일이다. 상담실이 있는 교회에는 늘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상담하는 부인이 많다고들 한다. 혹은 구역예배의 기도제목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모든 경제생활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어떤 교회에는 기업체 회장들이 출석하고, 또 어떤 교회에는 노조 위원장이 출석하고 있어서, 교회라 해도 다 같은 교회는 아니다. 이 둘이 아주 피 터지게 싸운 사건도 필자는 들은 바 있다. 그러나 교회의 윤리는 늘 이들을 따라서 둘로 갈라질 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공감적으로 말하지 못하였다. 필자는 이것이 어떤 한 목사가 일도양단하여 자신의 교회 성도들을 책망함으로써 끝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교회 전반에 일정한 사회적 양심이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오늘 개신교 교회들은 마르크스의 말이나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존재가 인식을 결정한다는. 사회적 존재란 주로 경제적 지위를 말하는 것이고, 인식이란 결국은 옳고 그름과 추이의 판단이 될 것인데, 교회는 그 사람의 인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사회적 존재가 그의 모든 생각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넘어서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늘 묻는다. 필자는 단적으로 진심 어린 매일의 영적 훈련에 있다고 본다.⁹⁾ 생활의 부패를 바로 세울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한국 교회는 이미 이 일을 하여오고 있다. 한국의 대부분 교회들이 이미 교회의 제도로 삼다시피 한 '경건의 시간'은 탁월한 영적 훈련의 틀이다.¹⁰⁾ 그럼에도 그 결실이 사회적 영향력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스스로를 확인하는 것에만 머무르고 있다. 필자는 그 효용을 일단 인정하면서, 알고 보면 그것과 그다지 다를 바 없는 한 방법을 우리 시대에 맞추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것은 필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써 하나의 사례 발표가 될 것이다.

다시 간략히 말하자면, 오늘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훈련을 하여야 한다. 매일 매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어디서 넘어질지 모른다. 물론 주일예배로 인하여 은혜를 지속할 수 있지만, 그 주일 예배의 영향력이 한 주간의 어디까지 미칠지 확신할 수 없다. 또 한편 매일의 훈련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주 신선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예전적 의미를 진하게 느낀다. 매주 설교를 하지만, 성찬을 하기로 한 주에는 좀 더 몸과 마음과 손과 발을 조심한다. 예전적 행위들은 마치 주님의 실체를 본 듯이, 그리고 그 실체만큼은 아니라도 표징의 능력(Calvin, Const., 4.14.10)¹¹⁾이 끼쳐지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런 면에서는 이 매일의 훈련을 제도화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자주 하나님을 향하여 각성하게 되리라 보는

8) 특히 이 부분은 박영신 교수의 글로 개신교회의 물신주의에서 이어지는 여러 방향의 사회적 이미지 추락을 지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책 자체가 주로 거론하는 목회사회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보여준다.

9) 필자는 이 부분에서도 지미 롱의 말에 깊이 근거를 둔다. 모든 성도가 모든 것에 대하여 깊이 영적으로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10) 경건의 시간은 사실 기독교 역사 내내 존재해 온 렉시오디비나의 변용이다. 렉시오디비나는 렉치오-메디타치오-오라치오-컨템플라치오(읽기-묵상-기도-관상)로 이어진다.

11) 표징의 능력은 실체가 나타나지는 않으나 표징을 매개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는 능력이니,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함이다. 이 매일의 훈련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해낼 것인가가 이 논문의 지향이다.

이 논문은 지향은 단순하지만, 전통과 문화를 연결시키는 해석적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앞서 개념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것은 갑자기 내용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확인된 방법인 성경일과(lectionary)를 적절히 사용할 방법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은 이것이 성도들 사이에 널리 통용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현대적 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전통적 방법을 추구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문제이다. 필자는 이것을 SNS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며, 본격적 SNS보다는 낮은 수준의 매체를 취함으로써 보다 대중적이 되게 하고자 한다. 실제로 필자의 교회에서 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 성경일과의 역사

앞서 말한 바대로 필자의 의도는 성경일과에 있지 SNS에 있지 않다. 이미 성경일과가 견고하게 자리 잡은 가운데, 단지 SNS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말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의도가 아니다. 마침 성경일과를 담을 미디어로서 SNS가 나왔기 때문에, 이참에 전통적 생활 지침이면서도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 못한 성경일과를¹²⁾ 소개하는 기회를 삼으려는 것이다. 성경일과는 실은 그냥 사용하면 된다. 특히 근래 세계적으로 또 특히 미국 개신교회에서 성경일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일어나서 1992년에 개정공동성경일과가 나왔고, 예를 들어 미국 개교회 같은 교단은 자신들의 예전서에 잘 정리된 성경일과표를 보여주고 있다(The Worship Sourcebook, 2004, 823-30).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신교 교회가 성경일과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여 오지 않았으므로, 그 신뢰성이 자주 질문의 대상이 되곤 한다. 따라서 역사적 접근을 통하여 그 신뢰성을 밝혀두는 것은 성경일과의 일상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성경일과는 꽤 이른 시기에 설교나 혹은 다른 문서 등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다.(정장복, 51; 56; 64) 물론 초기에 그것은 그리 치밀하게 마련되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사람에게 따라서는 성경 중에 어떤 것들은 그 자체가 일종의 성경일과였다고 말하기도 한다.(정장복, 62) 이것은 성경일과의 분명한 존재적 입증은 아니지만, 기독교가 교회초기부터 성경일과를 보편적으로 필요로 했다는 것의 입증이다. 그렇게 렉서너리는 분명히 교회에서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수련에 렉서너리가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베네딕트 수도 회칙에는 수련자의 여러 가지 준수 사항들이 나오지만, 거기에는 성경일과도 나와 있다(이형우 역주, 1991, 101-121)¹³⁾영성 수련의 제도적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이집트 시리아 등의 사막 교부들이 문서로 만들어진 렉서너리를 사용했는지는 당시 교회의 상황에 견주어 알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설교자들이 렉서너리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 그 시대 수행의 중심

12) 특히 복음주의권의 교회는 아직 교회에 어떤 절기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절기에 어떤 말씀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전통적 고려가 전혀 없는 채로 예배하고 또한 일상을 살고 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성경일과에 반영된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해석학적 기초도 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3) 여기서 베네딕토 수도회칙은 '8.밤에 바칠 성무일도에 대하여'에서 시작해서 '18.어떤 순서로 시편들을 외울 것인가'까지 성경일과를 이어간다.

이었던 수련자들에게 그런 문서가 없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1) 사막의 교부들

영성 수련의 제도적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이집트 시리아 등의 사막 교부들이 문서로 만들어진 렉서너리를 사용했는지는 당시 교회의 상황에 견주어 알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설교자들이 렉서너리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 그 시대 수행의 중심이었던 수련자들에게 그런 문서가 없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도자들의 성경 지식이 중요했으리라 짐작할 수도 있다. 공주수도의 대표자격으로 평가되는 파코미우스는 변창했을 때에 거의 만 명에 가까운 후배 수사들을 인도하였는데, 그의 모든 수련의 출발점에 그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맥긴, 1997, 171). 또한 사막 교부들 사상의 핵으로 성경암송이 거론되는데(정준기, 2004, 150-51), 수련을 하는 수사들에게서 성경암송이 중요했다는 것은 성경과 관련하여 일련의 기록된 혹은 구전적 성구표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혹은 표가 아니더라도 그들 사이에 통용되는 일련의 연속성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2) 수도회 훈련 규칙

필자는 베네딕트 수도 회칙을 본 바가 있다. 특히 수련에 힘을 기울이며, 그 수련의 재로나 방법에 힘을 기울인 사람들이 당시 수련자 혹은 수사임에는 틀림없다. 베네딕트회가 그렇게 렉서너리를 모아서 자료로 형성시킬 정도이면, 이를 둘러싼 렉서너리 전통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인쇄술이 발전된 시대가 아니었으므로 쉬 성경을 대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럴수록 이런 렉서너리에 대한 필요는 더 절실했을 것이다. 그것은 고대적 의미에서 주님의 행적을 좇는 방법이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단정한 예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런 렉서너리는 필요했을 것이다. 베네딕트 수도회규칙을 그 편집자는 이 렉서너리가 매우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이라는 평가까지 담았다. 그 평가의 기준은 분명하지 않지만, 말하자면 수도자들에게도 또 목회자들에게도 평신도들에게도 무엇인가 매일을 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렉서너리로 준비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또한 진정성도 있다.

3) 영적 지도

영적 지도를 현대적으로 설명하자면, 경건의 시간에 영적 상담을 덧붙인 것이라 할 수 있다(유해룡, 1999, 148:). 영성사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영적지도란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권고와 기도에 의해서 행하는 목회 활동이다... 모든 종류의 지도는 양심과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과 상식과 관련된 상황에 비추어 점검되어야 한다.”(기독교영성사전, 2002, 영적지도) 전통적으로 이 영적 지도를 하는 상담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시하면서 상담하였다. 그들은 말하자면 성경의 구체적 내용과 수련자들의 영적 심적 상태를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었는데, 필자는 그것이 말할 것도 없이, 기도와 성경 읽기의 능력이 라고 본다.¹⁴⁾

그런데,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 의미 있지만, 렉서너리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성경을 대하였을 때 그 능력은 배가 된다. 무엇보다도 렉서너리에 제시된 본문들은 시대를 건너서 근접한 의미를 가진 본문들을 함께 해석해 내는 힘을 길러준다. 뚜렷한 제목 아래 렉서너리가 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혹은 매 주일 연결된 4개의 본문이 있다.¹⁵⁾ 늘 렉서너리를 대하는 사람은 구약과 신약, 토라와 시편, 서신과 복음서 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감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영적 지도의 기초를 삼는 것이다. 물론 진지한 기도와 수련자를 사랑하는 교사로서의 마음 등이 다 결부되겠지만, 렉서너리 이해의 폭은 영적 지도를 성공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렉서너리를 단지 수련자들을 위한 영적 지도라는 말에 가두어 둘 것이 아니라 교회 일반을 위한 생활 지도의 방안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미디어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접촉점의 문제가 컸기 때문에, 접촉이 가능한 사람에게 행하는 영적 지도가 중요했겠지만, 이제 다 방면의 미디어가 있고,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미디어가 있으므로 우리는 영적 지도를 성도들의 생활 지도로 이끌고 나와야 한다.

필자는 여기에 대한 어떤 혁명적 변화도 상정해 본다. 이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다. 기껏해야 희망자에 한 해서 상담하거나 영적 지도를 했는데, 교회 전 성도들을 대상으로 삼고 비록 영적 지도만큼 철저하지는 못하지만 훈련이 행해진다는 것은 큰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오늘 스마트폰은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변수는 많다. 오히려 더 가만히 받아먹기 식의 신앙이 될까 하는 우려도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성도들의 생활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제까지 훈련에서 비어 있는 부분을 먼저 채워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영적 훈련의 저변 확대가 가능하다고 본다.¹⁶⁾ 과연 앞으로 우리는 어떤 미디어의 세계에 살게 될까?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스마트폰을 영적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는 훈련이 요청된다. 변하여 가는 미디어를 가지고 과연 어떤 새로운 영적 훈련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늘 찾아야 하는 것이다.

4) 렉서너리의 명암

종교개혁가들은 한 때 절기와 함께 이 렉서너리를 포기했었다(정장복, 59). 가톨릭의 너무나 미신적인 절기 운영과 그에 결부된 렉서너리는 성도들의 영성을 키우는데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교회는 절기와 렉서너리를 잃어버리고 사실은 매우 무리한 일상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성탄절을 앞두고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종려주일을 거쳐 부활절에 도달할 그 시기에는 우리의 죄를 묵상해 보는 사순절의 의미가 당연하다. 그런 것까지 끊어진 상태에

14) 물론 일반적으로 영성신학자들은 성경보다는 기도를 더 강조하는 편이다. 영성신학이 원래 성도의 하나님 경험을 중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개념이 조직신학에 속하고 성경이 보다 주경의 분야라면, 영적 지도는 보다 경험적이라는 특성을 가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15) 토라, 시편, 서신, 복음서, 그렇게 4본문이다.

16) 20세기 후반부에 문화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연구는 대중문화 연구가 되었다. 그렇듯이 오늘 교회의 훈련 연구도 대중적 훈련의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뿐만 아니라 실행도 그렇다. 지금까지 그런 훈련이 전무 했다는 것은 아니고, 필자가 제기하는 방법은 의미만 매기면 언제라도 실시할 수 있는 일로서 의미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서 매일 해가 뜨고 달이 뜨지만, 장차 천국의 모든 것을 채우실 하나님의 그 빛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연속적 시간으로 나아오지 못하고, 오로지 주일을 지내고 특별히 기억하는 몇 가지 절기만 지킬 뿐 성경 일과도 없는 채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무리한 일이다.¹⁷⁾ 물론 연속적인 성경 읽기가 있지만(정장복, 55),¹⁸⁾ 그것도 또 구약 조금 신약 조금이라는 너무나 덤덤한 방식을 따라서 말씀을 대하는 것이 고작이 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개신교 교회는 절기와 렉서너리를 회복하여야만 하였다.(정장복, 59)¹⁹⁾가톨릭의 미신성은 다시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지만, 저 그릇된 용광로를 지나온 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렉서너리의 역사는 렉서너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보여주지만, 우리가 취할 것은 그 밝은 면을 취하는 것과 어두운 면을 고쳐 놓는 것이다.

5) 여전히 그 기본 개념은 매우 이상적이다

한편 실제 사용되고 있는 렉서너리는 매우 유용하다. 그것은 성도의 영성 생활과 목사의 목회를 절대적으로 돕는다. 렉서너리는 절기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늘 절기에 알맞은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렉서너리를 사용할 기회가 더 많다. 오늘 의 교회로 말하자면 교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매주 예배를 여는 말씀 낭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렉서너리를 따라서 할 수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설교도 렉서너리를 따라서 본문을 취하면 된다. 렉서너리의 본문을 다 사용했다 할 정도의 상황이 되려면 적어도 렉서너리를 10년은 사용한 사역자라야 할 것이다. 1992년에 나온 미국의 개정공동성경일과는 2040년까지 사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니,(Worship Sourcebook, 823) 다시 나오는 렉서너리를 사용할 생각도 할 수 있겠고, 목회자의 삶이 달라짐에 따라 이미 사용했던 렉서너리도 새로운 의미를 품을 수도 있다. 또한 렉서너리에 연결하여 성경 이해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영성훈련과 성경공부 인도 및 설교를 진행시켜 갈 수 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관련된 부분으로 렉서너리를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을 읽으니 당연히 기도생활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평일 영성 생활까지 하고, 목회자는 그것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성경 해석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다. 특히 장년들의 성경공부는 절기를 따라 렉서너리에 제시된 본문을 가지고 독자적 그룹 성경공부에도 나갈 수 있다. 필자는 렉서너리는 단연 목회 초년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라 하고 싶다. 의외로 이런 사실에 대한 안내가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6) uncommon lectionary

로이드 존스는 렉서너리가 상투적이라 했다 한다. 맞는 말이다. 그만큼 뛰어난 설교자에게 렉서너리는 너무나 기본적인 본문들이다. 그러나 그래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렉

17) 시간은 원래 영원과 마주서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영원의 표징(sign)이라는 국면을 가지고 있다.

18) 성경일과는 원래 연속성경일과(lectio continua)와 발췌성경일과(lectio selecta)가 있다. 그 중에 전자는 절기와 비교적 무관하게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는 것이고, 후자가 바로 절기를 따른 성경일과이다.

19) 정장복 교수는 특히 1940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절기 회복에 대하여 크게 다루고 있는데, 기독교 교회 전반에서의 교회력 절기와 성경일과 회복 문제는 비교교회적 연구를 통하여야만 상세히 말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래도 오늘 성경일과를 회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관점은 오히려 기독교초기의 성경일과 현상에서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서너리를 통해서 사역자들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본문들에 접하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근래에는 이른 바 uncommon lectionary라는 개념도 통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비공동성경일과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차이를 두지 않고 쓰는 공동성경일과가 아니라 어떤 집단 혹은 개인의 공동적이지 않은 성경일과도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그런데 이런 비공동성경일과까지 만들어 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동성경일과를 거처 본 사람이 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예배 및 영성 분야에서 진전을 보고 그 결과로 비공동성경일과까지 구성해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영성과 목회와 생활에 있어서의 큰 발전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7) 결어

성경일과의 역사는 그것이 기독교초기부터 사용되었다는 것, 그리고 늘 사용되었다는 것, 사용이 제한된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필요성을 더 절실히 알게 해 주었다는 것, 반드시 온 세계가 모여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 이해에 열심만 있다면 작은 집단과 개인이라 할지라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해 볼 수 있다는 것 등을 확인해 두고 싶다. 그만큼 성경일과는 필수적이면서도 새로운 방향성마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사용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시대에 맞추어 활용할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최근 렉서너리 사용의 추이

앞서 우리는 역사적 추이를 중심으로 렉서너리의 사용을 살펴보았다. 이제 오늘날 얼마나 현장감 있게 렉서너리가 소용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개정공동성경일과까지

절기와 렉서너리를 연구하는 개신교 연구자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이미 개신교 교회들이 절기를 되찾고 있다는 것을 중시한다.(정장복, 66-70) 사소한 자존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톨릭의 유행에 연동되어 렉서너리와 절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당연히 이것들이 요청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향이 세계 교회에 확산되는 데는 가톨릭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정장복, 74-76) 개신교 교회들이 일사불란하게 렉서너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교회에 렉서너리를 파급시키는 가톨릭의 영향은 매우 크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 가톨릭도 매우 복음적인 방식을 취하였다(정장복, 70-73). 그 이후로는 개신교교회의 렉서너리가 이들의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필자로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본다. 그러나 개정공동성경일과는 개신교교회들의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 성경일과는 2040년까지

20) 영어본으로 「Introducing the Uncommon Lectionary」 같은 책이 있다.

3년 주기로 사용하도록 안내되고 있다(Worship Sourcebook, 823).

독일교회는 1년 주기의 성경일과를 사용해 오고 있고(정장복, 110-12), 영국은 영국대로 자신들의 방식이 있다(정장복, 263-286). 어느 쪽이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교회들로 하나 되게 하고 규모 있게 한다는 것이다.

2) 한국 예배학자들과 사역자들의 노력

한국 교회의 경우 목회자들보다는 예배학자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렉서너리의 분야이다. 필자는 매년 가을 학기에 예배학 강의를 하여 왔다. 그런데 절기 이해나 렉서너리 이해는 그야말로 걸음마 단계이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렉서너리를 사용하는 것이 가톨릭 전통이 아니냐는 의심만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학자들은 조용히 설득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 그냥 이론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필자 교회 주보의 예배 순서, 렉서너리 해설, 거기에 연결된 매일의 훈련 문자 등을 보여주며 강의하였는데, 약간의 효과가 있었고, 모든 사람의 내심은 설문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 같았다.

교회는 보수성을 가진 곳이다. 필자는 이 보수성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다. 그냥 사실 기술이다. 그런데 이 보수성을 가진 곳은 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의심한다. 이 의심에 대해서도 필자는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다. 예배의 원칙상 급격하게 예배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사람들로 부터 혼란을 몰고 온다. 교회는 예배순서를 급작스럽게 바꿀 수 없으며, 늘 있던 순서가 계속됨으로 하여 성도들은 편안함을 느낀다. 그것은 사역자들이 평신도들을 향하여 지켜 주어야 하는 가치이다.

그러므로 이 렉서너리의 경우도 우선은 학자들이 인내를 가지고 사역자들을 설득해야 하고, 또 사역자들은 평신도들이 편안함을 가지도록 설득하고 또 더 나은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오늘 한국 교회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는 가치 평가는 아무런 필요 없는 일로 생각된다. 단지 해야 되는 일은 이 절기와 렉서너리 사용의 문제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우리가 더 기독교인다워질 것이라 여기는 분야여서, 실천신학자들은 이 일에 힘을 기울일 사명이 있고, 사역자들 또한 예배와 삶의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기독교적 한 해 살이의 자료로서

성경일과의 현대적 추이와 목회 및 예배에서의 상황은 위와 같고, 성도들의 일상도 생각해 보아야겠다. 원래 성경일과는 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만약 이 방법이 안 된다면, 사실 공동의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것보다도 이것은 공인된 방법이다. 비록 어떤 교회이냐에 따라서 갭이 많이 있기는 하나, 특히 성경을 중시하는 개혁교회의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일상 생활의 자료가 바로 이 렉서너리이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인데다, 한국은 다원종교적 상황도 아주 강한 편이어서, 이 렉서너리에 대한 목회자들의 해설이 또한 필수적이다. 그래야 그 말씀들이 생활에 대하여 실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너무도 많이 층이 지기 때문에, 그럴수록 다양하게 성도들을 알기는 해야 하지만, 또 그럴수록 목사에게서 나가는 공동으로 어루만지

는 렉서너리 해설은 매우 필요하다. 필자의 교회에서는 우선 설교에서 렉서너리와 연관시키고, 그 주 성경일과를 주보에 해설하고, 그런 다음 매일의 훈련을 통해 문자를 보낸다. 그것은 이미 들은 설교와 주보에서 확인한 내용과 같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두는 하나의 연결선상에 있게 된다. 바로 이런 노력을 통하여 성도들은 점차 렉서너리를 자신의 생활의 자료로 삼을 것이다.²¹⁾

목회자에 따라서는 심방을 발로 하는 목회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그런 관점이라면 매일의 훈련 문자는 성도들을 넷가로 끌고 가서 목구멍에다 물을 넣어주는 격이 될 거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정말 성경이 멀고 말씀이 먼 사람들이 우선은 목회자가 된지 말씀 메시지를 보냈다는 생각이라도 하게 되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때로는 그 말씀을 보게 되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다가는 그 문자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할 것이며²²⁾, 스스로 그런 문자를 한 번 만들어 볼 생각도 하게 될 것이다.²³⁾

이렇게 함으로써 주보의 여러 요소와 메시지는 일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괄적인 자료가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여도 적용을 시킬 만한 가까운 말씀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형편이라면, 그런 자료를 마치 생의 동반자처럼 지니고 다니는 핸드폰에 계속하여 보내주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에 이것은 정말로 접촉적 하나만은 아주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거기에 목회자의 약간의 문필의 능력과, 그런 것을 나눌 만한 기존의 사랑의 관계 등만 좀 덧붙여 진다면, 성도들은 실로 좋은 삶의 자료를 얻는 것이다.

4. 필자의 렉서너리 사용의 실제

필자의 렉서너리 사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전개하며 이미 거의 모두를 말하였다. 여기에서는 단지 단계별로 정리하려고 한다. 실례도 다음 장에 제시해 보겠다.

1) 설교본문 선정과 예배 구성 - 주보 작성

필자는 수년째 렉서너리를 따라서 설교하고, 예배를 구성하고, 성도들의 영성 자료를 만들어 왔다. 설교와 예배 구성은 필자가 마련해서 진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었다. 효과와 관련해서는 절기를 지킨다는 면에서 성도들에게 그것이 배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필자가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가지는 관점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우선은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흔들림이 훨씬 덜

21) 꽤 광범위하게 성경일과를 학문적 역사적으로 접근한 정장복 교수의 책 「교회력과 성서일과」도 실제적 방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세세히 해명하지는 못하였다. 아마도 이런 방법 자체가 또 논쟁과 차이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 보다 늦은 시대에 서서, 목회선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의 한 사례를 제시해 보는 것에 대하여 기쁨이 있다.

22) 필자의 경우, 그런 예가 있었다. 자신에게 좋으므로, 다른 몇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것이 되면 좋겠다. 담임목사가 이것을 모두 관리하자면 한계도 있다. 아마 구역장들이 결의하면 될 일인 것 같다.

23) 필자가 바쁜 일로 문자가 늦어진 날, 한 사람이 오늘은 내가 목사님 보다 먼저 문자 보낸다고 하면서 글을 보낸 경우가 있었다. 흔한 예는 아니다.

하다. 매주 렉서너리가 있고, 그 렉서너리를 따라서 말씀이 필요한 자리를 다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사용에도 효율적이고 최종적 형태도 좀더 정돈된 모양이 된다. 성경이라는 조 심스러운 자료를 가지고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예배를 구성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만약 렉서너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불현듯이 오늘날은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예배를 구성하고 싶다면 그것은 렉서너리 사용의 예외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 그러나 늘 내가 끌리는 대로 하다가, 어느 날은 정말 예배 구성과 설교 본문 선정에 큰 난관에 봉착한다면 어떡하겠는가? 우리의 영성은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내겠지만, 늘 이 문제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은 목회자가 설교와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효율적이 되어서 좋다는 것이다. 필자로서는 성도들에게 이전과 차이가 있느냐고 물어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주보에 대하여 그 내용의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알차다는 평가를 들은 바가 있다. 렉서너리가 체계적으로 주보에 반영된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²⁴⁾

2) 핸드폰 문자 보내기

우리 시대 매일 훈련 도구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서둘러서 말해보기로 하였다. 필자는 성도들의 매일 훈련을 위하여 먼저 주보를 사용하여 보았다.²⁵⁾ 그러나, 주보는 인쇄물일 뿐 예배 후에는 주보를 그냥 두고 가는 사람도 많고, 또 가지고 간 사람도 모으는 데 급급하지 그것을 경건생활에 활용하는 것은 별로 보지를 못했다. 오늘의 목회는 귀납적 성경 연구, 귀납적 설교 등 모든 것이 귀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귀납은 교회의 활동을 어떤 면에서는 매우 난잡하게 만들 수 있다. 프레드 크래독은 말했다.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에 ‘아멘’ 하지 않을 수 있다. 목사가 보내는 문자에 대해서도 성도들은 아멘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귀납의 한 조각으로, 그리고 그것이 목사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조각 중에서는 좀 큰 조각이라 할 것이 성도에게 전하여 질 때, 성도들은 때로는 할 수 없이, 때로는 매우 큰 깨달음을 얻으며 이 문자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그 어떤 것보다 효과적인 매일 훈련의 방향성이다.

상당한 심리적 성과도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고독한 삶에 빠지기 일쑤이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적 조건들은 우리를 외로움에 빠뜨린다. 그래서 우리는 매체에 얼마간 의존하게 되는데, 그 매체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지 않다. 그런데 매일 날아드는 매체의 내용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면, 성도의 영혼은 그만큼 치유와 평안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낸 후 성도들에게 받은 그리 신학적이지 않은 말들이 늘 언제나 반가운 것을 보면, 이 문자가 반가운 매일의 손님일 것이라 여겨진다.

3) 첨단 SNS와의 격차

24) 필자는 회개의 기도를 공동기도문으로 적어서 교독으로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이 기도문이 좋다고들 많이 말했다. 그러나 이 기도문과 함께 렉서너리의 반영을 좋게 받아 들었다.

25) 물론 이미 말한 대로 한국교회에는 경건의 시간이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정착되어 있기도 하다.

이 논문은 SNS의 첨단적 사용을 추구하지 않았다. 현재 도달해 있는 미디어의 수준을 따라 가장 생활 가까이에서 우리의 전통적 훈련을 가능하게 해 줄 방법을 찾았다. 이것은 필자가 도달해 있는 수준이기도 하고, 비교적 대중적인 수준이기도 하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다. 사실 SNS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핸드폰의 새로운 사용법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필자의 경우 교회 성도 일반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라 카카오톡조차 염두에 두지 않고, 유료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SNS는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문자 보내기는 그 범주에 들지도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SNS는 현재는 모바일 서비스와 연결됨으로써만 실제로 대중적 활성화가 이루어지므로 핸드폰은 SNS문화의 절대적인 인자이다. 따라서 정의에 딱 떨어지게 맞지는 않아도, SNS문화의 후광 정도로 여길 수는 있는 것이 문자 보내기이다. 그리고 적어도 필자가 하고 있는 교회 활동의 역할을 감당해 내기에는 문자 보내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우리는 트위터도 페이스북도 아직 교회 대중 일반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반면 핸드폰 문자는 보내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이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핸드폰이 없는 사람도 아직 있지만 액정이 있는 인터넷 폰은 문자 수신이 가능해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활동이 되었다. 정확하게 SNS가 아닌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사용하고 있고, 그만큼 사용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단점은 문자 하나 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교회들은 이미 스마트폰용 앱 프로그램까지 만들고 있으므로 필자의 이런 방식을 그리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지만, 문자 송신이 갖는 다소간의 강제성 같은 것으로 해서 훈련의 의미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은 필자로서는 밝혀 두고 싶다. 문자가 온 것을 알고도 안 볼 수는 있지만, 문자가 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채로 지나가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필자는 성도들에게 이 문자를 보내고 한 번씩 묻는다. 이 문자를 보고 있는지. 청소년들은 그리 혹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담임목사와 청소년 사이의 작은 연결의 끈이 되기는 한다.

그러니까 이 문자 보내기는 목회자가 보내기 원하는 사람이고 수신자가 거부 의사만 가지고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나 시행될 수 있는 훈련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더 깊은 훈련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다른 방법을 필요로 하겠지만, 교회 성도 일반의 훈련 출발점으로 이것은 매우 유용하다.

4) 미리 예측해 보는 결과

필자는 수년간 주보에 성경일과 해설을 담으면서 과연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있는지 늘 다소 의심스러웠다. 그러니까 주보에 렉서너리를 반영한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알아 볼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2011년 여전도사님이 주축이 되어서 매주 기도회를 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 때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바로 이 매주 기도회 때 전도사님이 말씀으로 렉서너리 해설의 내용을 사용했다. 또 몇 성도들에게 과제를 주었는데, 필자가 주보에 쓴 렉서너리 해설을 조금씩 조금씩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성도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 렉서너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 알지 못한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 한 마디 한 마디가 은혜이며 기쁨이 된다고

하였다.

5. 실례

필자는 어느 한 주일 잠언 1장 설교를 하였다. 거기서 지혜와 훈련이라는 말에 주목하면서, 우리도 훈련을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작정했고, 내내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 40일을 단위로 시즌의 숫자를 올려가며 하고 있는데, 10월 18일 현재 3-8(88일째)에 도달하고 있다. 반응이 폭발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매일의 훈련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직접 간접으로 듣는다. 또 성도들 가운데서 이 활동만을 위해서 쓰도록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다.²⁶⁾

1) 이 주간의 렉서너리

잠언1:20-33/ 시편 19편/ 야고보서3:1-12/ 마가복음8:27-38

2) 설교 본문 선정과 예배 구성

삼위일체후15째주일 예배

오전 11:00 인도 : 안영혁 목사

I. 고백의 시간(주님 앞에 나아감)

*예배의 부름	----- 시19:7-10,14-----	인 도 자
*찬 송	----- 찬송64장-----	다 함 께
*고백 의 기도	----- 공동기도문-----	다 함 께
*평화 의 선포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다 함 께
성 경 교 독	----- 11.시편 17편-----	다 함 께
찬 송	----- 찬송289장-----	앞 아 서
기 도	-----	서지연전도사

II. 말씀의 시간 (구속의 의미를 기뻐함)

성 경 봉 독	----- 시23:4-----	다 함 께
찬 양	----- 찬양108장-----	다 함 께
말 씬	----- 신앙의 힘-----	최진경 교수
기 도	-----	설 교 자

26) 물론 이것은 필자가 헌금을 하라고 말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도 총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2주 혹은 3주에 한 번 정도 후원계좌를 조용히 문자와 함께 알려준다.

Ⅲ. 성례 및 축복과 파송

헌금 과 기도	----- 찬양167장 -----	이정숙 성도
광 고	-----	인 도 자
*찬 송	----- 찬양116장 -----	다 함 께
*축 도	-----	안영혁 목사

※개회 때의 말씀은 성경일과의 시편을 따라갔다. 성경교독에서 시편 17편을 사용한 것은 시편을 여러 개의 내러티브의 모음으로 보는 정경신학적 관점을 따라, 근접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채택하였다. 유감이지만 이 주일 설교는 필자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일과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일과 사용의 자유이다. 피할 수 없는 법칙이 아니라 영적 생활을 돕는 방편으로 성경일과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주보의 성경일과 해설

이번 주 성경 읽기 과제

잠언1:20-33 잠언9장까지의 말씀은 보다 후기의 것으로 잠언이 겁니다. 이 본문은 지혜에 귀기울이라는 경고입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다 지혜를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반면 지혜는 생명과 안전이 될 것입니다.

시편19편 온 천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구조를 가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과 혼과 육에 가장 큰 유익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3:1-12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노력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을 때 적절한 말을 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말을 피하고 성경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마가복음8:27-38 마가복음 8장으로부터 10장 말씀은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의 주님 말씀을 담고 있는데, 십자가 주제가 반복됩니다. 낮아지라는 말씀이었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출발점입니다.

※이 해설은 주보의 한 부분으로 실린 것이다. 지혜와 믿음의 온전함, 그리고 구원과 겸손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주제가 서로를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 매일의 훈련 문자

2012/9/17(월) 매일의 훈련2-17일째입니다. 시23편. 어제는 최진경교수께서 설교했습니다. 특히 4절에 주목하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될 수 있지만, 그 때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자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주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을 초연함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세상을 떠난 추상적 초연함이 아니라 어려운 삶을 하나님의 동행으로 이해하는 초연함이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2012/9/18(화) 매일의 훈련2-18일째입니다. 잠언1:20-33.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때로 외친다고 합니다. 아마도 마음의 욕망과 그 욕망을 꼬드키는 외부의 소리 때문에, 우리가 지혜의 명백한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혜를 얻는 것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지혜를 얻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잠언 한 번 정도 읽으십시오. 그러면 사방에 널려 있는 지혜의 길이 우리에게 보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2012/9/18(수) 매일의 훈련2-19일째입니다. 롬12:1-2.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진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늘 누추한 삶의 욕망들이 제 삶과 생각과 태도를 거머쥐고 있어서, 그리고 제 자신도 얼마간 거기 있기를 좋아해서, 여기를 치고 나가 구속된 자의 홀가분한 삶을 살고 싶은 소원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중단할 본격적인 삶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매일의 훈련이 그런 경건하고 치열한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에 이르러 다시 생각하는 매일 훈련의 목적입니다.

2012/9/20(목) 매일의 훈련 2-20일째입니다. 막8:27-38.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거듭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내어주는 겸손한 삶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우리 생활과 연관해서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웃어주라.” 사랑을 챙기지 못하는 가운데 웃음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겸손한 마음을 웃어주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2/9/21(금) 매일의 훈련 2-21일째입니다. 하박국3:19.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에게는 늘 우리 낮은 곳의 어려움이 문제입니다.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길은 여러 가지로 제시되었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의 힘을 얻어 내가 높은 곳을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좀더 사랑하면 우리는 좀더 높은 곳을 다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낮은 곳이 왜 문제인지 확증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높은 곳의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 짧은 인생의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높은 곳으로 다니시기를 기도합니다.

2012/9/22(토) 매일의 훈련 2-22일째입니다. 야고보서3:1-12. 에베소서 5장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가르쳤고, 그것은 성령 충만의 표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2중성을 질타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언행일치의 문제가 아니라, 한결 같은 사람에 대한 요구입니다. 선한 말을 했으면, 다음에도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말에만 힘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할 태도입니다.

※이것은 필자가 문자로 보내기 전 워드 프로그램에 기록한 것을 주 별로 모은 것이다.

III. 결론

1. 성경일과는 교회의 모든 생활과 결부되므로, 모든 성도들은 성경일과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사는 것이 경건에 필수적이다.
2. 성경일과를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런 신앙 이해와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오늘은 문자 전송이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성경일과와 핸드폰 문자전송이 연결될 수 있는 전통과 현대적 미디어라면, 더 잘 사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요청된다. 필자는 성경일과와 그 목상을 핸드폰 및 유료 문자 전송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을 전통과 SNS를 교육목회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4. 남는 문제 하나는 문자를 보내는 사역자의 문필의 능력이다. 이것은 언어 능력과 인격 전체를 요구하는 것인 만큼 전인적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목회자의 인격은 쉽 없는 진지한 기도에서 나온다고 본다. 사역자들의 영적 훈련이 다시 한 번 요청된다.

참고문헌

- 유해룡 (1999),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이성규 (2009), 『또 하나의 세계를 여는 트위터, 140자의 매직』, 서울: 책보서.
- 이원규 (1991),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 동일저자 (1994),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 성서연구사.
- 이형우 역주 (1991), 『베네딕도 수도규칙』, 경북 칠곡: 분도출판사.
- 장재일 (2012), 『밥하면서 보는 성경의 절기』, 서울: 쿤란 출판사.
- 정서영 (2009), 『세계교회사』, 서울: 도서출판진리.
- 정일웅 (2010),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 정장복 (1996), 『교회력과 성서일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정준기 (2004), 『사막교부들의 영성』, 서울: 은성출판사.
- 조성돈, 정재영 편 (2007) 『그들은 왜 가톨릭 교회로 갔는가?』,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흠 외 3인 (1988), 『기독교강요』상, 서울: 생명의 말씀사.
- 동일저자,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흠 외 3인 (1988), 『기독교강요』중, 서울: 생명의 말씀사.

- 동일저자,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흠 외 3인 (1988), 『기독교강요』 하, 서울: 생명의 말씀사.
- Jimmy Long, A Strategy for Reaching Postmodern Generations, 신현기 (2009), 서울: 한국기독교생회출판부.
- Bernard McGinn 외 2 ed., Christian Spirituality, 유해룡 외 3 (1997), 『기독교영성』 1, 서울: 은성출판사.
- 동일편자, Christian Spirituality, 유해룡 외 3 (1997), 『기독교영성』 1, 서울: 은성출판사.
- 동일편자, Christian Spirituality, 유해룡 외 3 (1997), 『기독교영성』 1, 서울: 은성출판사.
- Obscure, Learning Book of Twitter by 30 Minutes, 신영희 (2010), 『한 권으로 끝내는 소셜 네트워크 트위터+페이스북 길라잡이』, 서울: 정보문화사.
- Henry van Straelen, Constitutiones Decreta Declarationes Concilii
- Oecumenical Vaticanni Secundi, 현석호 (199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해설총서』 1,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동일저자, Constitutiones Decreta Declarationes Concilii
- Oecumenical Vaticanni Secundi, 현석호 (199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해설총서』 2,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동일저자, Constitutiones Decreta Declarationes Concilii
- Oecumenical Vaticanni Secundi, 현석호 (199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해설총서』 3,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 Gorden S. Wakefield, A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엄성옥 (2002), 『기독교영성사전』, 서울: 은성출판사.
-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Christian Church, 송인설 (1993), 『기독교회사』 상,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동일저자, A History of Christian Church, 송인설 (1993), 『기독교회사』 하,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Calvin Institute of Christian Worship (2004), 『The Worship Sourcebook』, Grand Rapids: CRC Publication.